



Angel Otero, Untitled, 2018, Oil skins and fabriccollaged on paper203.2x139.7cm 80x55 in



Brian Calvin, Together Again, 2018, Acrylic on canvas 137.2x101.6 cm54x40 in

세계 작가 작품으로 보는 동시대 미술

미국 로스앤젤레스 어느 상점 창에 걸려 있을법한 네온사인, 바닥에 누운 로마 시저 조각상 위에 놓인 망고와 딸기, 스펀지로 물감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여러 층이 겹쳐진 그림 등 갖가지 방식으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미술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리플렉션'(Reflections)전은 '반영'이라는 뜻의 제목처럼 다양한 작가들의 세계관과 현대 미술, 그리고 시대상을 보여준다. 국내외 작가 30여명이 개인적인 관심사부터 인종차별을 비롯한 사회, 정치 문제까지 넘나들며 다양한 기법과 형상으로 현대 미술의 면면을 드러낸다. 유명 큐레이터이자 작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맷 블랙이 각기 다른 개성과 정체성을 가진 각국 작가 작품을 선별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통해 격변하는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짚을 기회다.

에린 라일리, 패트릭 마르티네스, 파블로 토멕, 라이 데이비드

브래들리, 토니 마텔리 등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들이 다수 참여했다. 한국 출신 작가는 허산, 백승우, 에디강 등이 있다.

다채로운 작품들을 따라가다 보면 미국 유명 현대 미술가 제프 쿤스의 전시장이 나온다. 제프 쿤스는 생존 작가 가운데 가장 고가에 팔려 '살아있는 가장 비싼 예술가'로 불리는 팝아트 거장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명화를 모사한 작품 위에 코발트 블루빛 원형 유리를 붙여 관람객이 자신을 비춰보도록 유도하는 '게이징 볼'(Gazing ball) 시리즈 10점을 선보인다.

전시일정 내년 1월 5일까지(서울 종로구 평창동 가나아트센터)
관람료 성인 3천원
☎ 02-720-1020

현대미술로 보는 거짓말·거짓말·거짓말

우리 기억 속 동화와 만화 주인공들은 늘 순수하고 선한 행동만 했다.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는 늘 보던 동화의 결말이다. 그러나 멕시코 작가 로돌포 로아이는 술에 취한 공주, 주름 펴는 주사를 맞는 왕자 등 고정관념을 깨는 이미지와 상상과는 다른 결말을 보여준다. 엄익훈의 작품은 괴상하고 형태를 알 수 없는 철 조각이다. 그러나 쇠덩이에 빛을 비추면 벽면에는 사랑하는 연인 형상이 나타난다. 우리가 믿는 아름다운 실체의 내면이 추악할 수 있고, 흉측해 보이는 것 속에 아름다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서울미술관 '보통의 거짓말'전은 거짓말을 소재로 한 국내외 작가 23팀 작품 100여점을 전시한다. 회화, 사진, 영상, 미디어아트, 설치, 조각 등 현대미술 전 장르에 걸친 작품으로 우리 삶 속에 가득 찬 거짓말을 살펴본다.

작가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수많은 거짓말을 접하다 보면 거짓말이 얼마나 흔한지, 그동안 진실로 믿던 것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미술관은 관객들이 더 쉽고 흥미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장을 구성했다. 매일 2회 큐레이터와 도슨트의 정규 전시해설 프로그램도 편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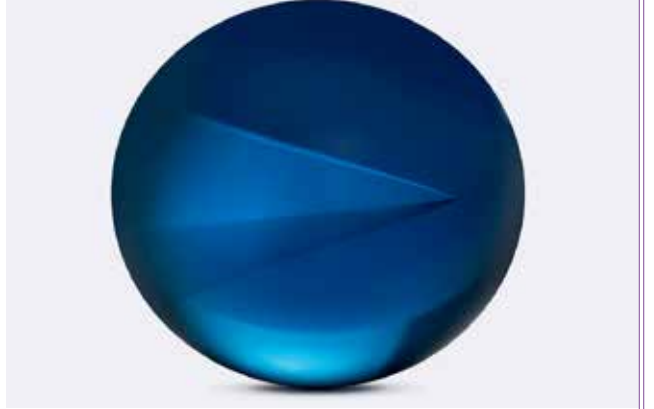
전시일정(장소) 내년 2월 16일까지(종로구 부암동 서울미술관)
관람료 성인 1만1천원, 학생 7천원, 미취학 아동 5천원
☎ 02-395-0100



엄익훈 어느 날, 2017, 철, LED, 우레탄 페인트, 28x30x43cm



HELEN PASHGIAN, Untitled, 2019 cast epoxy with resin 6 inches (diameter) 15.2cm 48.5 x 4 x 4 inches (pedestal) 123. x10.2x0.2cm



HELEN PASHGIAN, Untitled, 2019, Cast epoxy with resin, 6 inches (diameter), 15.2 cm, 48.5 x4 x4 inches (pedestal), 123.2x10.2x10.2cm

'빛과 공간의 작가' 헬렌 파시지안

'빛과 공간의 작가'로 불리는 헬렌 파시지안(85) 개인전이 리만머틴 서울 갤러리에서 열린다.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파시지안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여는 개인전이다.

파시지안을 대표하는 작품들인 렌즈, 구, 벽에 거는 조각이 전시된다. 그는 1960년대에 왕성한 활동을 벌이며 플라스틱 에폭시와 레진 등 산업 재료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해낸 핵심 작가로 꼽힌다. 고분자 합성물을 비롯한 다양한 신소재를 작품에 접목하고 실험했으며, 2006년부터는 2.5m에 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둥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파시지안 작품은 노튼 사이먼 미술관, 팜스프링스 미술관, 포모나 대학교 미술관, 포틀랜드 미술관, 샌타바버라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샌디에이고 현대미술관 등 세계 유수 기관에 소장됐다.

전시일정(장소) 내년 2월 1일까지(종로구 율곡로 리만머틴 갤러리)
관람료 무료
☎ 02-725-0094



인간 본성을 들여다보다 ‘나를 찾아줘’

아동 학대 소재를 스크린에 옮기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현실은 영화보다 더 잔혹하지만, 학대의 시연 자체가 또 다른 학대일 수 있어서다. 소재의 무게가 영화적 재미를 짓누를 수도 있다. 그럴 땐 극장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래도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심리적 장벽을 뛰어넘어 객석에 전해지는 경우가 있다. ‘나를 찾아줘’ 역시 후자 쪽에 가깝다. 불편하지만 불만한 영화라는 것이다.

6년 전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 이야기가 큰 열개다. 전체적인 만들새는 제법 매끈한 편이다. 군더더기 없는 빠른 전개와 긴장감, 반전 등 스틸러로서 장점을 두루 갖췄다.

주된 배경은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바닷가지만, 영화는 그 속에 따리를 튼 어두컴컴한 비극을 길어 올린다. 극 전반에 깔린 정서는 모성애다. 병원 간호사인 정연(이영애)은 실종된 자기 아들을 밝히는 낯선 전화 한 통을 받고, 바닷가 외딴 낚시터로 달려간다. 정연은 그곳에서 수상한 기운을 느끼고, 아들이 있음을 직감한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일상의 평화를 깨는 외지인을 경계하며 뒤편을 계속 감추려 들고, 정연은 진실에 다가갈수록 고초를 겪는다.

‘친절한 금자씨’ 이후 14년 만에 돌아온 이영애가 절절한 모성을 보여준다. 연기 공백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의 깊이는 한층 깊어졌다. 희망과 서늘함, 황망함, 절실함, 절기 등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눈빛 연기가 인상적이다.

영화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연을 둘러싼 인간군상이다. ‘어떻게 그렇게 보통 사람들보다 더 밝게 생활할 수 있냐’며 툭툭 말 화살을

날리는 주변인들, 장난 문자 한 통으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아이들, 정연의 슬픔을 파고들어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잇속을 챙기는 가족들을 통해 인간 본성을 드러낸다.

낚시터 마을 사람들의 면면도 마찬가지다. 부패 경찰 홍경장(유재명)을 중심으로 권력 서열을 이루며 공동체 삶을 사는 이들은 아이의 학대를 눈감는 것은 물론 돌아가면서 착취를 일삼는다. 그곳을 찾는 수많은 낚시꾼 역시 다르지 않다. 노예처럼 혹사당하는 꼬마 아이를 눈여겨보는 이들은 없다. 이들이 전형적인 악당으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평범한 이들이어서 상황은 더 비극적으로 다가온다. 영화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 비정함과 같은 인간 본성과 함께 공권력의 부패와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응축해놓는다.

아동 학대를 다루는 부문은 여전히 아슬아슬하다. 부모가 아니더라도 고개를 돌리고 싶은 순간이 많을 듯하다. 그런 불편함 너머 영화 속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관객의 몫이다. 사람들이 영화를 본 뒤 실종 아동을 찾는 전단이나 길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에게 한 번 더 눈길을 준다면, 이 영화는 제 몫을 해낸 셈이다.

감독 김승우
 출연 이영애, 유재명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개봉 11월 27일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

전설적인 여배우 파비안느는 회고록 발간을 앞두고 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딸 루미르와 사위 헵크가 어린 딸과 함께 파비안느의 집을 찾는다. 반가운 재회 뒤, 엄마의 회고록을 읽은 루미르는 책 속의 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랜만에 만난 모녀는 오랫동안 서로 쌓아왔던 오해를 풀고 숨겨진 진실에 다가간다. 일본의 살아있는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첫 글로벌 프로젝트다.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목소리 출연 카트린 드뇌브, 쥘리에트 비노슈, 이선 호크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12월 5일



결혼 이야기

니콜과 찰리는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지금은 남보다 못한 여색한 사이가 됐다. 잘잘못을 따지면서 과거의 관계에 묶이고,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도 어느 순간 아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게 된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어린 아들과 가족들 때문에 그 여색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부부와 가족을 예리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혼의 민낯을 그려낸다.

감독 노아 바움백
 목소리 출연 스칼렛 요한슨, 아담 드라이버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개봉 11월 27일



두 교황

종신직인 교황에서 자진 사임한 베네딕토 16세와 그 후임이 된 교황 프란치스코의 인간적인 고뇌를 스크린에 담았다. 기밀문서 유출과 부패 의혹, 성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교황청은 거센 바람을 맞는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만 결국 사임을 결심하고, 베르골리오 추기경(프란치스코 교황)은 강하게 반대한다. 두 주연 배우의 외모부터 놀라운 싱크로율을 보여준다. ‘시티 오브 갓’으로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에 올랐던 페르난도 메이렐레스 감독이 연출했다.

감독 페르난도 메이렐레스
 출연 앤서니 홉킨스, 조너선 프라이어
 등급 미정
 개봉 12월 11일



속물들

애인 김형중과 동거하는 미술 작가 선우정은 동료 작가의 작품을 베끼다시피 모사한 작품에 ‘표절 1, 2, 3...’이란 제목을 붙여 ‘차용 미술’이라는 말로 포장해 팔아먹고 산다. 원작자로부터 소송이 끊이지 않는 그에게 큐레이터 서진호는 촉망받는 작가들만 참여한다는 유민 미술관 특별전을 제안한다. 애인 김형중은 유민 미술관 팀장으로 들어가고, 이들 앞에 우정의 고교 동창 탁소영이 나타난다. 속내를 감춘 네 사람과 유민 미술관 총감독 유지현까지 미술관에 모여들어 신경전을 펼친다.

감독 신아가, 이상철
 출연 유다인, 심희섭, 송재림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개봉 12월 12일



전설의 록밴드가 온다 U2 첫 내한

전설적인 록밴드 U2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공연을 펼친다. 1976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결성된 U2는 보컬 보노와 기타리스트 디 에지, 드러머 래리 멀렌 주니어, 베이스리스트 아담 클레이턴 등 원년 멤버 4명이 지금까지 함께 활동한다.

사회의식과 인간애를 담은 노래로 잘 알려진 이들은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전 세계 1억8천만여장 앨범 판매고, 총 22회 그라미 수상,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8회, 영국(UK) 앨범 차트 1위 10회, 로큰롤 명예의 전당 헌액 등을 이뤘다.

다양한 장르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한 U2는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미국 시장에서 모두 1위에 오른 앨범을 보

유한 유일한 그룹이기도 하다.

이번 한국 공연은 '조슈아 트리 투어' 일환이다. 1987년 발표한 '조슈아 트리'는 2천500만장 이상 판매된 U2의 대표작이다. 앨범



발매 3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조슈아 트리 투어 2017'은 6개월간 51회 공연을 통해 27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번 '조슈아 트리 투어 2019'는 11월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호주, 싱가포르, 일본, 한국 공연으로 이어진다. 한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처음으로 공연이 성사됐다.

가수이자 라디오 음악방송 진행자인 배철수는 U2에 대해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팀"이라며 "내한공연을 갖는 '전설'의 경우 다소 전성기가 지나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U2는 최고의 정점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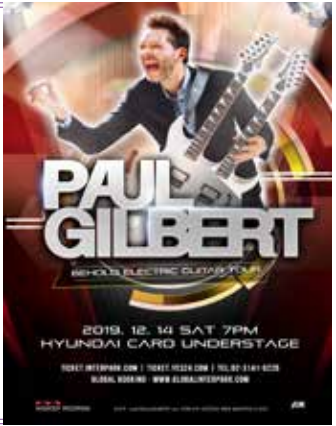
공연일정(장소) 12월 8일(교척스카이돔)
티켓 9만9천~45만4천원
☎ 1544-6399

폴 길버트

미국 록 밴드 '미스터 빅'(MR.BIG)의 천재 기타리스트 폴 길버트의 연주를 한국에서 보게 됐다. 그의 단독 공연은 2005년 내한 이후 14년 만이다. 이번 공연은 3년 만에 내놓는 앨범인 '비홀드 일렉트릭 기타'(Behold Electric Guitar)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길버트는 하드록 장르를 대표하는 밴드 미스터 빅의 기타리스트로, 빠른 연주와 전통 드릴로 기타 줄을 뜯는 '드릴 피킹'으로 유명하다. 1997년 첫 솔로 앨범 '킹 오브 클럽스'(King of Clubs)를 시작으로 꾸준히 솔로 활동을 이어왔다. 기타 연주와 함께 보컬 파트까지 본인이 직접 소화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미스터 빅의 곡과 길버트의 솔로곡을 모두 들을 수 있다.

공연일정(장소) 12월 8일(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티켓 8만8천원
☎ 02-3141-9226



카스 블루 플레이그라운드 월드카운트다운

올 연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축제가 서울에서 열린다. 대표적인 여름 야외 축제 '카스 블루 플레이그라운드'와 '월드디제이페스티벌'을 제작한 비이피씨 탄젠트가 기획한 '카스 블루 플레이그라운드 월드카운트다운'(Cass Blue Playground World Countdown)이다.

올해 마지막 날 시작되는 이 축제는 새해 첫날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열린다. 세계 최정상 EDM DJ인 옐로 클로, 살바토레 가나찌, 쿠라, 이비스비 등이 공연을 이끈다. 신분증을 지참한 만 19세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

공연일정(장소) 12월 31일(동대문디자인플라자)
티켓 7만6천900~10만원
☎ 1588-4763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박진영 대표가 본업인 가수로 돌아와 단독 콘서트를 연다. 박진영이 작곡해 1위를 기록한 노래를 총 망라해 무대에서 선보인다.

'그녀는 예뻐다', '허니'(HONEY), '난 여자가 있는데' 등 본인이 부른 곡과 god '거짓말', 원더걸스의 '텔 미'(TELL ME), 2PM '어게인 앤드 어게인'(AGAIN & AGAIN)' 등 다른 가수가 부른 곡도 재해석할 예정이다.

공연일정(장소) 12월 21일(대구 엑스코) 12월 25일(부산 사직실내체육관)
12월 28, 29, 31일(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티켓 9만9천~15만4천원
☎ 1544-1555



김준수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가 3년 만에 연말 콘서트 '발라드&뮤지컬 콘서트'(Ballad&Musical Concert with Orchestra Vol.6)를 연다. 발라드와 영화 OST, 뮤지컬 넘버를 오케스트라와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김준수가 자신의 '시그니처' 공연인 연말 발라드&뮤지컬 콘서트를 여는 것은 지난해 11월 전역한 후 처음이다. 전역 후 '웨이 백 시야'라는 타이틀로 국내 컴백 콘서트와 일본투어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김준수는 특유의 허스키한 보이스와 애절한 창법이 특징이다.

공연일정(장소) 12월 28~29일(코엑스 D홀)
티켓 14만3천원~19만9천원
☎ 1899-0042

■ 뮤지컬·연극 임동근 기자 dklm@yna.co.kr



7년 만에 찾아오는 오리지널의 감동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월드투어

전 세계를 매혹한 불후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12월 한국에 상륙한다.

2012년 25주년 기념 내한공연 이후 7년 만의 오리지널 공연이다. 부산 드림씨어터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서울 블루스퀘어, 7월 대구 계명아트센터에서 관객과 만난다.

1986년 웨스트엔드, 1988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한 이래 전 세계 41개국, 183개 도시에서 1억4천만명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웨스트 엔드와 브로드웨이에서 30년 이상 연속 공연되는 유일한 작품으로 '브로드웨이 최장기 공연' 기네스북 기록, 브로드웨이 최초 1만3천회 공연 기록을 달성했으며 토니상, 올리비에상을 포함해 전 세계 주요 어워드 70여개 부문을 수상했다.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아름다운 음악과 파리 오페라하우스, 지하 미궁, 거대한 상들리에 등 화려한 무대, 230여벌의 의상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작품은 19세기 파리 오페라하우스를 배경

으로 흥측한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오페라하우스 지하에 숨어 사는 천재음악가 유령과 프리마돈나 크리스틴, 그리고 크리스틴을 사랑하는 귀족 청년 라울의 러브스토리를 그린다.

유리구슬 20만개로 치장한 상들리에로 상



징되는 웅장한 무대와 '오페라의 유령'(The Phantom of the Opera), '밤의 노래'(The Music of the Night), '바람은 그것뿐'(All I Ask of You) 등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주옥같은 명곡이 관객을 매료시킨다. 무대 디자이너 마리아 비욘슨은 이번 월드투어를 위해 거대한 세트를 새로 제작했다.

2019년 2월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시작한 '오페라의 유령' 월드투어는 부산을 비롯해 쿠알라룸푸르, 텔아비브, 두바이 등 4곳을 초연 도시에 포함했다. 아시아와 중동을 아우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연일정(장소) 12월 23일~2020년 2월 9일 (부산 드림씨어터), 3월 14일~6월 26일(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7~8월(대구 계명아트센터)
티켓 VIP석 17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9만원, B석 6만원
☎ 1577-3363

따스함 전하는 마법 같은 뮤지컬 '빅 피쉬'

2013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첫선을 보인 뮤지컬 '빅 피쉬'가 국내 초연한다.

'빅 피쉬'는 대니얼 월러스 원작 소설(1998)과 팀 버튼 감독 영화(2003)로 잘 알려졌다. 뮤지컬은 2013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첫선을 보였고, 2017년 웨스트엔드에서 공연됐다. 브로드웨이 초연 때 CJ ENM이 협력 프로듀서로 참여해 한국 공연권을 확보했다.

작품은 겉으로는 평범한 세일즈맨이지만 인기 힘들 정도로 환상적인 에피소드가 많은 아버지 에드워드와 전하고자 한 진실을 아들 윌이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묻는다.

낭만적인 허풍쟁이 아버지 '에드워드' 역은 배우 남경주, 박호산, 손준호가 맡는다. 에드워드의 첫사랑이자 아내 '산드라' 역에는 구원영, 김지우가 낙점됐으며 아들 '윌' 역에는 이창용, 김성철이 출연한다. 윌의 약혼자 '조세핀'으로는 김한희가 등장한다.

20여년간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광범한 무대 작업을 펼친 연출가 스캇 슈왈츠가 연출한다.

슈왈츠는 "영화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지만 무대는 팀 버튼의 세상과 다르다"며 "거인을 만나고 인어와 헤엄치는 등 환상적이고 판타지적인 장면을 관객이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무대를 꾸미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이 충만하지만 웃긴 작품"이라고 귀띔했다.

공연일정(장소) 12월 4일~2020년 2월 9일(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티켓 R석 13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 1588-5212



세 광대가 들려주는 동화, 연극 '환상동화'

대학로 소극장 창작연극으로 사랑받던 '환상동화'가 6년 만에 귀환한다. 극은 삶에 대한 관점과 예술적 사상이 각기 다른 사랑광대, 예술광대, 전쟁광대가 서로 자기 의견만 주장하다 결국 사랑, 예술, 전쟁이 모두 들어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내용이다.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소리를 잃어버린 피아노를 치는 남자 '한스'와 시력을 잃어버린 춤추는 여인 '마리'를 중심으로 전쟁터와 카페를 오가며 이야기는 진행된다.

세 광대는 차가운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작은 이야기 하나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홍무관학교', '어쩌면해피엔딩', '신과 함께'를 연출한 김동연 연출가의 첫 대학로 데뷔 작품이다.

배우 송광일·강하늘(사랑광대' 역), 원종환·육현욱('예술광대' 역), 기세중·장지후('전쟁광대' 역) 등이 출연한다.

특히 5년 만에 연극 무대에 서는 강하늘이 순수하고 감성적인 사랑광대를 어떻게 연기할지 기대를 모은다. 내년 1월부터 출연한다.

공연일정(장소) 12월 21일~2020년 3월 1일(대학로 동덕여대 코튼홀)
티켓 전석 6만원
☎ 1577-3363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고전발레 ‘호두까기 인형’



아이들이 기다리던 발레 시즌이다. 연말을 맞아 매년 공연되는 ‘호두까기 인형’이 올해도 어김없이 관객들과 만난다. ‘호두까기 인형’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 ‘백조의 호수’와 함께 고전 발레 3대 걸작으로 꼽힌다.

차이콥스키 음악을 바탕으로 프리파-이바노프 콤비가 완성했다. 189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됐다. ‘눈의 왈츠’, ‘꽃의 왈츠’의 수준 높은 코르드발레(군무)와 클라라와 호두까기 왕자의 2인무(파드되), 러시아, 스페인, 아라비아, 중국의 캐릭터 댄스까지 볼거리가 풍성한 작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말마다 국내 주요 발레단이 무대에 올린다.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1966년 러시아 불쇼이발레단이 초연한 유리 그리 가로비치 버전으로, 2000년 국내 초연 이후 매년 전석 매진을 기록한 스테디셀러다. 주인공 소녀 이름을 ‘클라라’에서 ‘마리’로 바꾸고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해주는 주인공 큰아버지 드로셀마이어를 범룡가이자 마법을 쓰는 신비로운 인물로 설정하는 등 각 등장인물에 구체적인 설정을 추가해 극의 개연성을 높였다. 또 목각인형 대신 어린 무용수가 호두까기 인형을 직접 연기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높은 점프와 고난도 회전, 악마 인형들의 역동적인 춤도 발레에 활력을 불어 넣는 요소다. 디베르티스망(극 줄거리와 상관없이 다양한 춤을 펼쳐 보여 관객을 즐겁게 하기 위한 부분)도 화려하고 고난도의 춤으로 구성해 볼거리를 더했다.

유니버설발레단은 1986년 ‘호두까기 인형’ 초연 이후 870여회 공연했다.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은 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의 바실리 바이노넨 버전을 따른다. 차이콥스키 음악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살려냈다는 평을 받는 버전이다. 이 작품은 신인 무용수가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발레단에서 주역 무용수들이 ‘호두까기인형’을 통해 관객들에게 처음 눈도장을 찍는다. 유니버설의 ‘호두까기 인형’도 지난해까지 전석 매진됐다.

서울발레시어터의 ‘호두까기 인형’은 상임 안무가 제임스 전이 한국적 요소를 가미해 안무한 버전이다. 2막의 각 나라 전통춤 선보이는 장면이 상모돌리기와 장구춤이 추가되고 무용수들이 한복을 입기도 한다. 또 클래식 버전보다 속도감 있는 전개에 극 사이사이 코믹한 요소를 넣어 보는 재미를 살렸다.

마포문화재단 상주단체인 와이즈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2013년부터 연속 매진한 공연이다. 비보이 크루가 쥐들로 분해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선보인다. 경쾌하고 절도 있는 병정들의 화려한 탭댄스도 볼거리다.

공연일정(장소) 국립발레단 12월 14~24일(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유니버설발레단 12월 21~31일(유니버설아트센터), 서울발레시어터 12월 19~25일(강동아트센터), 와이즈발레단 12월 6~8일(마포아트센터)
티켓 국립발레단 5천~9만원, 유니버설발레단 1만~10만원, 서울발레시어터 3만~7만원, 와이즈발레단 4만~6만원
☎ 02-580-1300(국립발레단), 070-7124-1729(유니버설발레단), 02-440-0500(강동아트센터), 02-3274-8600(마포아트센터)

카리스마 넘치는 게르기에프, 마린스키 이끌고 내한공연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이끄는 마린스키 오케스트라가 내한 공연을 갖는다. 마린스키 극장을 본거지로 삼아 이백여 년 역사를 이은 마린스키 오케스트라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관현악단 중 하나다.

1988년 마린스키 극장의 음악감독으로 취임한 게르기에프는 30년 넘게 마린스키와 인연을 맺고 있다. 현재는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겸 음악감독이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로테르담

필하모닉 수석 지휘자로 활동했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는 런던 심포니 수석 지휘자직을 맡았다. 2015년부터는 뮌헨 필하모닉 예술감독을 겸한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는 거울의 낭만과 어울리는 대중적인 곡으로 관객을 만난다. 마린스키만의 광대하고도 풍부한 사운드로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과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을 라벨 관현악 편곡 버전으로 연주한다. 협연자로는 국내를 대표하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나선다. 그는 서정성이 풍부하고, 테크닉이 화려한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선보인다. 베토벤, 브람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함께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작품이다. 주미 강은 2015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입상 이후 게르기에프와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로테르담 필하모닉에서 함께 연주한 인연이 있다.



공연일정(장소) 12월 10일(롯데콘서트홀)
티켓 6만~25만원
☎ 1544-7744



피아니스트 백혜선 30주년, 베토벤과 다시 만나다

피아니스트 백혜선이 데뷔 30주년을 기념해 리사이틀을 연다. 백혜선은 1989년 메릴랜드 윌리엄 카펠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어 1994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1위 없는 3위를 수상했고, 이듬해 서울대 음대 교수에 채용됐다. 만 29세로 서울대 음대 사상 최연소 기록이었다.

2005년에는 10년간의 교육자 생활을 마무리한 후 미국으로 이주, 현재까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백혜선은 20대 때 화려한 스케일, 호쾌한 타건으로 주목받았으나 나이가 들어 더욱 원숙해지면서 감정표현까지 풍부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독주회에서 연주하는 곡은 메릴랜드 윌리엄 카펠 등 여러 콩쿠르에서 우승을 안긴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28번이다. 베토벤 후기 작품으로, 전기 작품에 견줘 형식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감정 표현이 좀 더 섬세해졌다는 평을 받는 곡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후기 소나타인 피아노소나타 31번과 32번도 선보인다. 이번 연주는 백혜선이 2018년부터 내년까지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베토벤 프로젝트’ 일환이다.

공연일정(장소) 12월 8일(롯데콘서트홀)
티켓 3만~7만원
☎ 02-1577-5266



노은주 임형남 지음 / 인물과사상사 펴냄 / 284쪽 / 1만6천원

손해사정 법인 '로메리고 주식회사'에 다니는 주인공은 공원 자전거 사고를 조사하다 목격자 중 한 명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이 목격자가 맞은편 오피스텔을 향해 기마 자세를 취하자 유리창이 깨지면서 사람이 다친 것이다. 그러나 이 장면이 의도적인 '테러'인지, 우연한 '사고'인지 확인할 수 없다. 주인공은 사고가 난 오피스텔에 사는 여자친구 집을 드나들다 '장풍'을 사용할지도 모르는 목격자와 자주 마주치고, 목격자를 '장풍 테러범'으로 확신하고 다그친다. 작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과 무지, 위선을 고발하고 진실의 상대성을 탐구한다. 이야기는 현실과 초현실을 오가다 하나의 출구에서 합쳐지는데, 이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기이하고 해괴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이기도 하다. 연합뉴스와 수림문화재단이 공동 제정한 수림문학상 제7회 수상작이다.



편혜영 외 / 은행나무 펴냄 / 224쪽 / 1만2천원

제13회 김유정 문학상 수상 작품집이다. 표제작은 수상자인 편혜영의 작품. 운오는 19년 전 물에 빠졌다가 살아남았다. 살아 나올 때 바위인 줄 알고 디뎠던 것은 사촌 형의 머리였다. 운오는 산 자의 죄의식과 형의 부재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고, 비열하고 악랄한 인간이었던 형은 의인으로 추억된다. 그리고 '죄 없는 죄의식'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김금희의 '기괴의 탄생', 김사과의 '예술가와 그의 보헤미안 친구', 김혜진의 '자정 무렵', 이주란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조남주의 '여자아이는 자라서', 최은미의 '보내는 이'까지 수상 후보작 6편도 함께 실렸다.



최영 지음 / 광화문글방 펴냄 / 312쪽 / 1만3천원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온 부부 건축사가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집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찰한다. '가족을 품은 집', '사람을 품은 집', '자연을 품은 집', '이야기를 품은 집' 등 4개 장의 제목을 보면 저자들이 생각하는 집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저자들은 "집이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그렇기에 추억이 들어있는 집, 기억이 묻어 있는 집, 가족의 생활이 담기는 집, 일상복처럼 편안한 집이 좋은 집"이라고 썼다.



세이머스 라만 칸 지음, 강예은 옮김 / 후마니타스 펴냄 / 424쪽 / 2만원

뉴햄프셔주 콩코드에 위치한 명문 사립교 세인트폴 스쿨은 500여 명 아이가 150여 년 역사의 100여 채 고딕 건물들에서 최고 교육을 받는다. 연간 학비는 4만달러, 학생 1인당 책정된 학교 예산은 8만달러에 이른다. 파키스탄과 아일랜드에서 이주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미국 뉴욕에서 성장한 저자는 외과 의사로 성공한 아버지 덕분에 이 학교에 다녔다. 하지만 그는 "재학 시간이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했지만, 실은 엘리트 친구들 사이에서 내내 불편했다"고 고백한다. 그러면서 "왜 누구는 이런 학교에 들어오는 게 당연한데, 누구는 죽도록 노력해 성취해야 하는 일이 되는가? 왜 어떤 애들은 학교생활이 너무 편하고 쉬운데, 어떤 애들엔겐 악전고투해야 하는 일이 될까?"라고 묻는다.



이소영 지음 / 책읽는수요일 펴냄 / 288쪽 / 1만5천원

식물세밀화가인 저자가 애정 어린 눈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그려낸 도시 식물 이야기. 그는 콘크리트 사이에 핀 제비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을 가진 식물이고, 딸기 한 알에 박힌 씨앗이 2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안다. 쪼그려 앉아 관찰하며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와 드넓은 세계로 식물을 이해한다. 길에서 흔히 보는 잡초로 알고 있는 민들레는 오랜 약용 식물이다. 크기가 큰 서양 민들레가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며 번식하는 반면, 크기가 작은 토종 민들레는 개체 수가 점점 줄며 남부에만 분포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현상을 두 식물의 싸움으로 보는 데 반대하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환경 파괴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김덕영 지음 / 길 펴냄 / 266쪽 / 1만8천원

사회학자인 김덕영 독일 카셀대 교수가 일제강점기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진 '한국 자본주의'를 계보학 측면에서 분석했다. 저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한국 자본주의 화신과 같은 인물로 본다. 한국 자본주의는 1960년대부터 국가와 기업, 개신교가 밀착해 구조화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는 '잘살아 보자'는 문구를 내세워 돈에 대한 욕망을 자극했고, 개신교는 경제성장을 신과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신성시했다는 것이 저자 생각이다. 즉 한국 자본주의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무리 먹어도 허기를 느끼는 오만하고 불경스러운 부자(富者)인 '에리식톤'을 닮았다는 것이다.